인사말씀

會長 李 啓 錫

우리 先輩들은 오랜 동안에 걸쳐 民族醫藥의 正統性 主體로서 國民健康을 위해 渾身의 힘을 다하는 가운데 學術硏究를 꾸준히 하여 燦爛한 韓藥의 文化를 꽃피워 왔습니다

우리 韓藥人은 先輩님들의 이러한 大業을 잘 繼承·發展시켜야 한다는 使命感으로 지속적인 學術의 硏究는 물론 그 事業에 邁進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에는 韓藥協會 역사 이래 첫 學術誌인 「大韓韓藥」 創刊號를 誕生시켰으며, 그 뒤로도 모든 會員들의 聲援에 힘입어 질이 높은 學術誌를 매년 發刊하고 있습니다. 이번 7號誌의 續刊은 그런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學術事業을 통해 해마다 「大韓韓藥」을 發刊할 수 있었던 것은 會員 여러분의 애정어린 關心과 더불어 後學들에게 學問을 전승하고 韓方의 優秀性을 世界萬邦에 알려야 한다는 使命感의 發露인 것입니다

우리 韓藥業士는 사실상 83년 이후 韓藥業士試驗制度의 死文化로 인해 후배들의 배출이 끊긴데다 회원들의 高齡化에 따른 死亡·廢業 등으로 해마다 많은 人員이 줄어들어 회세가 날로 弱化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世界化·情報化·開放化 時代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學術事業과 함께 韓藥人의 硏究意志를 더욱 高揚하여 더 生産的인 學問으로 發展시켜 海外市場에도 하나의 商品으로 進出시켜야 합니다 학술지 「大韓韓藥」이 年輪을 쌓아가면서 將來의 이런 우리 理想을 實現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발걸음을 매우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됩니다.

■ 인사말씀

先輩들의 많은 臨床經驗과 硏究를 통해 이루어 놓은 「東醫寶鑑」, 「方藥合編」, 「四象醫學」 등 귀중한 資料를 토대로 學問을 익히고 仁術을 베풀어 왔듯 우리 韓藥人은 꾸준히 學術事業을 통해 韓方 關聯書籍을 發刊함으로써 後學들이 이를 발판으로 더욱 硏究 · 發展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會員님들이 제공해 주시는 原稿 하나 하나에는 피와 땀이 배어 난 것으로 우리가 先輩들의 知慧와 努力이 담긴 것을 토대로 하듯, 後輩들이 또한 이러한 前轍을 밟아 連綿한 價値로 昇華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번 7號誌가 出刊할 수 있도록 남다른 熱情과 愛情으로 계속하여 귀중한 經驗方과 知識을 公開해 주신 會員들께 진심으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大韓韓藥」 7號誌가 發刊되기까지 渾身의 努力을 다하신 學術委員長을 비롯한 學術委員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3年 6月